

2024. 5. 12

제115권 19호

## 주일1부(목상)예배

오전 7시30분

인도:김기중목사

예배의부름	인도자
송 영	찬 양 대
찬 송 *서서	42장
성 시 묵 상	98
고백의기도	다 함 께
사죄의선언	인 도 자
신 앙 고 백	다 함 께
찬 송 *앉아서	576장
기 도	이완섭장로
찬 송 묵 상	(나 무엇과도 주님을, 권아름집사)
봉 현 송 *서서	213장(4절)
봉 현 기 도	담 임 목 사
교 회 소 식 *앉아서	담 임 목 사
찬 양	어머니의 넓은 사랑
잔 송	샬롬찬양대
성 경 봉 독	637장
말 씀 선 포	열왕기상17:15~17(구약P.545)
말 씀 묵 상	【어머니와 아들】
성 찬 예 식	담 임 목 사
성도의교제 *서서	55장
축 도	송영

## 오늘의 말씀 / 김승학 목사

열왕기상 17:15~17 / 어머니와 아들

부활절 일곱째 주일  
어버이주일  
성찬주일

## 주일2부(전통)예배 / 오전 9시

인도:신동영목사

찬 송	42, 576, 579, 55장	다 함 께
교 독	98	다 함 께
기 도		이성수장로
찬 양	어머님 노래	호산나찬양대
성 찬 예식		다 함 께

## 주일3부(세대통합)예배 / 오전 10시30분

인도:정승호목사

찬 송	송축해 내 영혼, 576, 579, 선한 능력으로	다 함 께
기 도		전희봉장로
찬 양	어버이의 사랑	글로리아찬양대
성 찬 예식		다 함 께
파송과위탁		다 함 께

인도자 :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  
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회 중 :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 주일4부(열린)예배 / 오후 12시

경배와찬양	소리엘찬양단
목회기도	인 도 자
성 찬 예식	다 함 께

† 내주기도 : I 부 - 장병의 장로 / II 부 - 신동현 장로 / III 부 - 임원수 장로  
청년예배 - 김지용 청년 / 찬양 - 박정옥 권사 / 수요 - 이재훈 목사

† 이달의 강단 꽃장식 : 김현제 이은경 이경현 김지영 장은진 장은서 권영광 김수진 표현창

\* 5월 예배일정 -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안내	봉헌	예배증보기도	차량안내
I	김봉수 권영대 황재남 장현숙	이주일	최미자	강성갑 고예란 권대기 권오덕 권중익
II	심재창 권영일 이은주 김윤애	서일교	김순화	길건성 김종관 김주연 박수권 박영재
III	권오규 이경현 이안희 이덕자	전운호	임은주	사봉권 신미영 성기용 서재창 양광석
IV	신재원 임병태 최성애 김경옥	조지용	강신숙	이국환 정위동 정영수 조대웅 황병락

## 주일5부(청년)예배 / 오후 1시45분

인도자:정준환목사

기도 - 조재일집사

설교 - 열왕기하5:1~10(구약P.567) / 믿음에서 믿음으로 / 정준환목사

## 주일오후찬양예배 / 오후 3시 (2024 상반기 한지붕 가족사랑예배) 인도자:신동영목사

경배와 찬양 - 다음세대찬양단 / 찬송 - 478, 559, 54 / 기도 - 윤성광장로 / 찬양 - 가족찬양대

설교 - 창세기1:26~28(구약P.2) / 치유와 회복이 있는 가정 / 황관욱목사

## 수요저녁예배 / 오후 7시30분

경배와 찬양 - 르비딤찬양단 / 기도 - 윤영이권사 / 특송 - 201~206구역 / 찬양 - 다비다찬양대

설교 - 에스라4:17~24(구약P.716) / 88.아하수에로-성전건축 중단을 명한 왕 / 담임목사

## 목상노트

“어머니와 아들” (열왕기상 17:15~17)

1. \_\_\_\_\_의 순종 (15~16)

목상을 위한 질문)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아들과 함께 살고 있던 사르밧의 혼자된 여인은 마지막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 한 웅큼과 약간의 기름만 갖고 있었다. 엘리야 선지자가 떡 한 조각을 부탁했을 때 이 여인은 순종했고, 여인의 순종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절망적인 상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경우가 있는가?

2. \_\_\_\_\_의 순종 (15~17)

목상을 위한 질문) 아들은 자신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 선지자에게 준 어머니를 옆에서 지켜보았을 것이다.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는 어떤 말도, 행동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들은 어머니에게 순종 것이다. 그렇다. 최고의 효(孝)는 순종이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가?